



패러글라이딩

푸른 하늘로 두둥실 날아올라

높은 하늘을 새처럼 자유롭게 나는 기분은 어떨까? 누구나 한번쯤은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고 싶다는 상상을 해 보았을 것이다. 하늘을 발밑에 두고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짜릿하고 흥분된다. 우리의 하늘을 나는 상상을 실현해주는 레포츠가 있다. 바로 패러글라이딩이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떠나고 상쾌하고 싱그러운 봄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지금, 하늘로 두둥실 떠올라 온몸으로 자연을 즐기는 패러글라이딩의 세계로 날아오르자. **에디터 정태웅**



패러글라이딩이란 낙하산(parachute)과 행글라이딩(hang gliding)의 합성어인데 말 그대로 낙하기능과 활공 기능을 함께 갖춘 레저스포츠로 1984년 프랑스의 한 등반가에 의해 개발됐다. 기체가 가볍고 접었을 때 부피가 작아 휴대가 간편해 항공레포츠의 인기종목으로 자리잡았다. 하늘에서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인 패러글라이딩은 하늘이라는 무한한 공간 속에 나 혼자만이 떠올라 자연을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내 눈앞에 펼쳐진 탁 트인 하늘, 발아래로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자연경관, 그리고 온몸에 느껴지는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에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기분까지 패러글라이딩을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흔히 패러글라이딩을 매우 과격하고, 역동적이며 위험한 레저스포츠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선입견일 뿐이다. 패러글라이딩을 할 때, 풍속은 보통 15km 정도 된다. 놀이기구를 탈 때처럼 스틸 있거나 짜릿한 느낌은 아니다. 이륙할 때 땅에서 발을 떼는 것이 무섭고 두려울 수는 있겠지만 하늘에 떠 있을 때는 진공 상태에 떠 있는 것같이 편안한 기분이다. 역동적인 레저스포츠이기도 하지만, 하늘에 떠 있으면서 혼자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즐긴다는 점에서 정적인 레저스포츠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비행을 할 때 무릎 보호대, 헬멧, 장갑 등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비행경력이 3년이 되기 전까지는 고급 비행자의 무전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 충분히 부상, 안전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패러글라이딩을 하려면 기본적인 체력과 운동신경이 좋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기본적인 순발력과 15~20kg 정도의 기체를 짊어지고 10초 정도를 전속력을 다해 뛸 수 있는 체력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패러글라이딩이 가장 활성화된 유럽의 주된 연령층은 50~70대이다. 그만큼 안전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란 뜻이다. 그리고 몸무게가 40kg 이상만 된다면 어린아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활공하기 적당한 기후와 전 국토의 약 70% 이상이 산악지형으로 되어있어 패러글라이딩을 즐기기엔 적합하다.

경기도 양평과 가평에 걸쳐있는 유명산 활공장, 광주시 매산리 백마산 활공장, 충북 단양 양방산 활공장, 전남 오산 활공장, 경북 오정산 활공장이 우리나라 대표적 패러글라이딩 활공장들이다. 우리나라의 아름답고 경이로운 자연경관이 펼쳐진 여러 활공장에서 패러글라이딩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물론 패러글라이딩이 하고 싶다고 무작정 장비를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우선 '패러글라이딩 스쿨'을 통해 기초교육을 받아야 한다. 협회공인스쿨이 실시하는 초급비행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패러글라이딩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연습조종사' 자격이 주어진다. 스쿨의 교육은 주로 바람이 가장 좋은 봄, 가을에 열린다. 국내에는 패러글라이딩 교육 전문 스쿨은 총 30곳 정도인데, 패러글라이딩은 하늘 위를 홀로 나는 위험이 있는 레저스포츠인 만큼 한국활공협회에서 운영하는 곳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높은 산 위에 자리 잡은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캐노피(canopy)를 등에 메고 경사면을 향해 힘차게 내달리다가 땅을 힘차게 박차고 뛰어올라 하늘에 몸을 맡긴다. 아름다운 우리강산이 눈앞에 펼쳐지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상쾌한 공기가 온몸을 파고들며 스트레스가 한순간 배출된다. 하늘을 나는 어렸을 적 상상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레저스포츠, 패러글라이딩을 시작해보자. 곧, 그 특별한 매력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패러글라이딩 안전수칙

1. 절대로 단독비행을 하지 마라.
2. 기체의 사용 횟수에 따라 정기적인 정비점검을 받아라.
3. 안전장비를 모두 갖춘 후 비행하라.
4. 음주 후(비행 전날 음주 포함), 약물 복용 후 비행하지 마라.
5. 자신의 능력한계보다 항상 한단계 낮춰서 비행하라.
6. 충분한 훈련 없이 비행하지 마라.
7. 감항 검정이 확인된 기체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라.
8. 공중에서 판단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라.
9. 기체 및 하네스 등의 수리는 전문가에 의뢰하고, 임의변경을 하지 마라.
10. 착륙 시, 즉시 캐노피가 무너지게 하라.